



2001년
11월 15일
제 39호

(1998년 9월 15일 창간)

춘천성시신문

나침반

교회생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발행·인쇄인: 임택창 편집인: 조중환 (200-091) 춘천시 효자1동373-90 대표전화 (033)256-1260-1 FAX(033)257-1260

춘천 성시화를 위한 연합 부흥 선교대회 열기 충천

- 복음화와 성시화, 교회연합시대 본격 출범 예고 -
- 4일밤 메시지 선포, 교파별 운영, 초교파집회 치다 참석 -
- 윤리와 가치관이 전도된 사회 회복위해 교회가 앞장설 것 다짐 -

춘천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김주환목사)는 10월 28일 오후 7시30분부터 31일 저녁까지 춘천호반신대체육관에서 춘천 성시화를 위한 연합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연가뉴엘감리교회 김국도 목사를 강사로 초청, 귀한 말씀을 통해 메마른 심령에 단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4일간 각 교파별로 예배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5천여명이 온전한 체육관은 메시지와 찬양, 연주, 율동을 통한 신앙의 열기로 뜨거웠다. 금번 연합집회는 연합회가 주도하는 마지막 집회였을 뿐 아니라 근래에 없었던 최대 최고의 은혜충만한 선교대회였다. 연합집사들의 능력있는 찬양과 합심기도로 교인들의 마음은 깨어

있고 회개는 눈물로 흘리며 춘천을 성시화(聖市化, Holy city)하려는 하나된 마음으로 변화되는 듯했다. 집회시간에 제정된 감격과 춘천 시민을 사랑하는 믿음, 그 열기는 성시화를 금방이라도 이뤄낼 것 같았다. 금번 집회는 갈 력적인 조직과 강도회원들의 역량이 큰 몫을 담당했으며 강도회원들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협동심을 발휘했고 첫날 집회에서 성도들의 앓을 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모두가 순신수범하여 일사분란하게 봉사했고 4일 동안의 집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연합행사에 있어서 강도들의 필요성과 역량을 실감케했다. 김국도 목사는 설교에서 "세련의 중보"(하

9:11-22) 또 다른 보혜사"(요14:16-20) "능력의 선물"들(고전12:4-11) "축복의 비결"(말3:7-12)이란 메시지를 전하여 성시화를 위한 믿음생활에 관한 비밀을 깨닫게 했다. 김주환 목사는 대회장 인사말에서 춘천 성시화를 위해 순서를 담당한 모든 교회와 선교단체,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교회연합을 위한 일들과 성시화 일꾼들을 섬을 통해 춘천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배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모든 교파와 교단, 교회들은 이제 높은 담을 철어버리고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 한 교회 한 성도의 모습으로 결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촬영제공 홍흥원 집사(순복음춘천교회)

직장선교연합 찬양축제 은혜 충만

- 7개 찬양단 출연, 직장복음화의 비전 확인 -

춘천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민병업목사)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7시 식사감리교회에서 3백여명의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제7회 직장인 찬양축제를 개최했다. 민병업 회장의 예배인도로 찬양을 정조예배위원장의 기도, 박상훈 수석부회장 성경독, 성시론 부장 임택창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식사교회 빛으로찬양단의 특별찬양 순서가 있었다. 이영규 성도의 사회로 시작된 찬양제는 각 직장선교회를 대표하여 모두 7개 팀이 출연해 깊이있는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민병목 부회장이 진행한 생운권 추첨과 선물추첨 시간에 이어 이영규 직장회장의 인도로 춘천성시화와 직장선교회의 부흥, 이 나라와 민족, 동일을 위해 합심기도 했으며 조종환 지도목사의 마침기도를 끝으로 축제의 막을 내렸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연합한 춘천의 직장선교 회원들은 모두가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로서 한물민 교회의 모습임을 깨달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동연합회는 지난 3년간 전국 직장선교찬양대회에 참여해 우수한 실력으로 1, 2위에 입상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특별한 찬양축제를 갖게 되었다.

직장선교회 출연팀 ① 한림대학교 ② 한국복지재단 ③ 조중환 성 ④ 춘천시청 ⑤ 강원도청 ⑥ 강원농협지역본부 ⑦ 춘천우체국



지금은 무슬림을 위해 기도할 때



12억의 무슬림, 세계 인구의 20%인 무슬림은 매일 4만명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 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 무슬림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일기에 함께 기도함으로 무슬림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 참여하는 동안 나의 기도가 세계를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11억의 무슬림들이 금식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 동안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중보기도하는 운동입니다. 1993년 25명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된 9년반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2천만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큰 모

임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주요 무슬림 종파와 국가가 기도제목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파송되는 무슬림 선교사의 수가 세배로 증가했고 새로운 동전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도여행과 많은 사역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방법
올해 라마단 기간은 11월 17일부터 12월 16일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책자를 보며 개인 혹은 여러 중보기도 모임에서 매일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한 날을 택하여 한끼 이상 금식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책자란?
무슬림 책자는 무슬림기간 동안 보다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다국적으로 구성된 팀이 제작한 협력의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될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격려가 될 것입니다.

★ 가격 : 1권당 2,000원
★ 기도책자 신청 : 예수전도단 춘천 지부
☎ 033)252-1128
E-mail : kbongwook@hanmail.net

춘천 기독교연합회 제6차 정기총회

- 새회장 김창수목사, 교회연합, 군복음화, 성시화 주력 -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지난 11월 1일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및 재정보고에 이어 회장 등 주요임원들을 선출하고 기타임원은 회장단에 위임기로 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창수 목사는 지난 1년간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동 연합의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연합회발전 당사부터 교회연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왔다. 그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성교회 담임목사로써 동부연합회 활동을 책임졌고 현재 CBS재단이사, 북한대 재단이사 및 동통위원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직을 맡고 있다. 32년간 목회로 지와 덕을 겸비하고 모든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여러한 동물학과 지도력을 지닌 인물로 모든 회원들은 교회연합과 춘천 성시화에 대해 크게 기대하고 있다. 전임회장이 남아놓은 미진한 일에 찬란한 금자탑을 세울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기독교인과 시민들의 기도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전국 직장선교연합회 20주년 기념 행사

-제17회 찬양예수제, 후원회 날, 할렘호틀 컨벤션쇼-

한국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회장 윤부하목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1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 할렘호틀 컨벤션홀에서 교계대표와 기관단체장, 전국 선교회 대표단이 참석해 예배와 후원행사를 거행하고 대전, 진남, 광주, 원주, 수원, (주)백산, 광천정방사 등 각 지역, 직능선교회 우수찬양단의 연주회로 찬양예수제를 열었으며 후원회 날과 만찬을 끝으로 20주년 기념행사를 마쳤다. 동 연합회는 전국 각 지역 직장 및 직능단체 소속의 유망하고 자제 선교사 교육 등에 주력하고 세계직장선교연합회를 창립 지원한 일과 선교회 설립 건축을 위한 기금모금에 전념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 찬양예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직장선교회 목회자협의회를 창립하고 직목협의 지도, 후원을 받으며 진한 선교로 발전하고 있다. 춘천연합회 민병업 회장과 조종환 지도목사는 직전, 중경의장들과 임원들을 이끌고 기념행사에 동참했다. (한국연 민병업회장 정근모목사, 이사장 두성달목사, 명예회장 나원용목사, 회장 윤부하목사, 후원회장 이명발목사, 직목협의회장 최천호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16 나산빌딩 306호 TEL: 02)3471-5070~2 http://www.workmission.or.kr

무료 양로원 나눔의 집

전교회에서 무료 양로원 나눔의 집을 운영하고
11월 16일 오전 11시 개원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성으로 사랑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 하오니
아래 사항을 보시고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퇴직 할머니
- 자녀가 없으신 분은 전액 무료입니다
- 자녀가 있으신 분은
 - ①자녀의 동의서를 첨부
 - ②월 100,000(십만)원의 회비를 받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순 10명만 모집합니다.
- 문의 244-1913(나눔의 집) / 242-4427(사무)
- 011-367-4426 / 242-1427(fax)

중교법인 나눔의 집
이장 임택창 목사
관 장 이복규 목사



제2회 가정 행복학교

가슴앓은 상처들이 매달리지 않아
자유롭게 웃을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설교 및 강의는 무엇입니까?



【CCC 가정학교】

국제CCC는 사역의 일환으로 가정과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나아가 건강한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왕국 성취를 돕도록 1976년 미국에서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이 시작되었다. 한국CCC에서도 미션을 위한 데이트 세미나가 1980년대 부터 진행되어 오던 중, 1992년 가정학교를 설립하고 대적교회, 예배침례교회, 부흥행복교회, 자녀양육센터, 인격계발센터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 ◆ 일시: 2001년 12월 8일(토) 오후 2시 30분 - 오후 10시(7시간)
- ◆ 장소: 춘천서사감리교회 세미나실
- ◆ 강사: 김명철 목사(CCC가정학교), 김경진 사모(가정상담실)
- ◆ 강령: 1.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다. 2. 가정은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이다. 3. 가정은 생명의 공동체이다. 4. 가정은 기쁨의 공동체이다. 5. 가정은 평화의 공동체이다. 6. 가정은 영광의 공동체이다. 7. 가정은 기쁨의 공동체이다. 8. 가정은 영광의 공동체이다. 9. 가정은 기쁨의 공동체이다. 10. 가정은 영광의 공동체이다.
- ◆ 등록비: 1인 15,000원 / 부부 25,000원 (교재비, 저녁식대비용)
- ◆ 등록비: 256-1260 / 254-5776 (※ 등록비납입: 27일 전까지)
- ◆ 등록비: 전화결제수입금 (통일 301813-51-020020 / 예금주: 정경호)

주 회: 춘천성서학회본부
주 관: 춘천서사감리교회, 춘천CCC사서함교회, 직장선교교회

군 복음화 찬양 선교대회

진동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빛으로 찬양단입니다. 빛으로 찬양단은 군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1993년 "군 복음화 대회"라는 이름으로 1회 모임을 시작하고 춘천교회의 군교회 형제 400여명, 관제 200여명, 총 600여명이 대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현재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사역 중 군의 복음화가 곧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의 기초가 된다는 믿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매년 춘천-홍천-원주-화천 지역 군교회 신우회 형제들의 생활에 협력하는 좋은 대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제9회 군복음화 선교대회를 통해 형제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한 군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찬양단 단장 유경준)



- ◆ 일 시: 2001년 12월 15일(토) 오후 6시 (예정)
- ◆ 장 소: 춘천서사감리교회 본당
- ◆ 참가비: 1인~25인 이하-2만원 / 26인 이상-3만원
- ◆ 문 의: 이영규 017-379-0691 / E-mail: armyvision@hanmail.net
교회사무실 TEL: 033) 261-6823 / FAX 261-6824
- ◆ 주 관: 빛으로찬양단
- ◆ 주 회: 춘천서사교회 음악부
- ◆ 후 원: 2군단사령부 군종부, CBS춘천기독교방송, 군선교연합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출천심시화운동본부

